

TIPLONews 한국어본

2026 년 8 월호(K324)

이달의 주제

K260703X3

01 대만 경찰, 해적판 「베이블레이드」, 6 만 4 천개 적발, 피해액 시가 1000 만 신대만 달러를 초과

대만 보안경찰 제 3 총대¹⁾는 2026 년 6 월 30 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해 대량의 위조 「베이블레이드」를 밀반입하려던 불법 업자들을 검거했다. 초기 조사 결과, 해당 위조된 베이블레이드의 시장 가치는 1 천만 대만달러 이상으로 추산되었다. 본 사건은 저작권법 및 세관 밀수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어, 관련 당국에 이관하여 검토 및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안경찰 제 3 총대의 수사 결과, 일부업자들이 불법으로 인기 장난감인 「베이블레이드」의 위조품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 제품을 「장난감」으로 위장하고, 저렴한 가격에 위조품을 대량으로 밀수입한 후,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분석과 고위험 컨테이너 선별 과정을 거쳐, 천(陳)씨 성을 가진 사업자가 중국에서 수입한 컨테이너 하나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신베이(新北)시 우구(五股)구에서 현지검사 진행하였다.

컨테이너를 열고 화물을 조사해본 결과, Funbox Toys 에서 대리하여 정식으로 유통하는 베이블레이드의 위조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중에는 시중에서 인기 있는 모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숫자상 확인한 결과, 총 128 개의 상자에 약 6.4 만개의 베이블레이드가 들어 있었는데, 이는 실로 엄청난 양이었다.

불법업자들은 검사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몰래섞기」²⁾ 수법을 사용했다. 128 상자 중 단지 13 상자만 신고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115 상자(약 57,500 개)는 아예 신고하지 않은 채, 대만으로 밀반입하려 했다. 현재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불법 반입된 물품의 가치는 1 천만 대만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보안경찰 제 3 총대는, 저작권자에게 통보하여 감정 실시를 요청한 결과, 해당 물품들이 모두 불법 위조품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는 관련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 및 세관 밀수방지법에 따라, 관련 당국에 이관되어 검토 및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다른 밀수 조직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2026.07)

역주:

- 1) 공식 명칭은 내정부 경정서 보안경찰 제 3 총대 (內政部警政署 保安警察第三總隊)이며, 대만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보안경찰 조직이다.(보안경찰제 3 총대)
- 2) 중국어 원문은「魚目混珠」로, 물고기 눈알을 진주와 섞는다는 뜻인데, 가짜를 진짜와 섞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편의상, 가짜를 진짜들 사이에 혼합하는 「몰래 섞기」라고 번역했다.

02 여성 발명특허 우선심사 시범사업, 2026년 7월 1일부터 1년 연장 시행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¹⁾은 2026년 6월 26일 공고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 온 「여성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시범사업」²⁾을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한다. 시범 사업 시행후 여성 출원인의 평균 심사 소요 기간은 44.2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여성의 혁신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고 특허권 획득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심사 역량을 평가한 후 시범 사업을 수정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다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범 방안은,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출원인 또는 출원인 중 한 명이 여성이며, 그 여성이 발명자 또는 발명자 중 한 명인 경우에 적용된다. 출원은 지혜재산국이 출원인에게 실질 심사 예정일을 통지한 날부터 최초 심사 의견이 발표될 때까지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출원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혜재산국은 6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 의견을 발표하거나 승인을 부여한다.

이번 수정안은 시범 기간만 연장 조정하는 것이며, 기타 다른 모든 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수정된 「여성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시범사업」 및 기존 「여성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시범 사업 관련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혜재산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6)

역주:

- 1)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經濟部智慧財產局)은 한국의 지식재산처에 해당
- 2) 중국어 원문은, 「女性申請發明專利加速審查試行方案」이다.

03 「아샤(阿霞) 식당」 상표권 소송 마무리, 양측 화해 선언

대만 남부 타이난(台南)의 오랜 전통 대만 음식점 「아샤(阿霞) 식당」¹⁾을 둘러싼, 5 년간의 가족간 상표권 소송 끝에, 양측은 「분업 경영 합의」를 공동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화해를 선언했다.

「아샤(阿霞) 식당」의 창업자인 우진샤(吳錦霞)는 2009 년 은퇴 후 경영권을 점차적으로 이양했다. 오프라인 식당의 운영권과 관련 상표권은 둘째 동생의 아들인 우릉찬(吳榮燦)에게, 현재 실제 식당은 3 대째인 우젠하오(吳健豪)가 운영하게 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과 냉동식품 배달 사업의 운영권 및 상표권은 다섯째 동생의 딸인 우칭룽(吳靑蓉)에게 이전하였다.

오프라인 식당 책임자인 우젠하오(吳健豪)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했다. 그는 「아샤(阿霞)」, 「아샤 식당(阿霞飯店)」 등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사용하여 배달 상품, 온라인 쇼핑 및 상품을 홍보하고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는 상표권 침해 의혹을 받았다. 이후 온라인 판권을 보유한 우칭룽(吳靑蓉)이 권리한계를 넘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우젠하오(吳健豪)를 고소했고, 양측은 5 년간에 걸쳐 소송전을 벌였다.

상표권 분쟁의 추가 확대를 막기 위해 양측은 최종적으로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사업을 분업 경영하기로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우젠하오(吳健豪) 측의 오프라인 매장은 「원조 아샤(阿霞) 식당」²⁾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합의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우칭룽(吳靑蓉) 측은 「아샤(阿霞) 식당 온라인 쇼핑몰」을 공식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2026.07)

역주:

1) 원문의「阿霞飯店」을 의역했다.

2) 원문은「尋真阿霞飯店」이다. “尋真”은 고객에게 “가짜나 유사 브랜드에 혼동하지 않고, 진정한 원조의 맛과 정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가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원조”라고 의역했다.

